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의 편찬과 의의

남재주*

■ 차례 ■

- I. 서론
- II. 寒岡 禮問答書의 편찬
 - 1. 조선시대 예문답서의 편찬
 - 2. 한강 예문답서의 편찬
- III.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의 편찬과 의의
 - 1. 편찬 과정
 - 2. 체재와 내용
 - 3. 특징과 의의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7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禮學者이자 영남지역 禮學派의 거두인 寒岡 鄭述(1543~1620)의 禮問答을 수록한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의 편찬 과정, 체재와 내용, 특징과 의의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 책은 한강의 문집인 『寒岡集』에 수록된 예문답을 위주로 채록하고 기타 자료에 산견되는 한강의 예문답까지 아울러서 冠婚喪祭의 四禮 체계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강집』에 수록된 四禮 관련 문답을 추출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한강의 예설 관점을 집중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다.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andongtour@hanmail.net

둘째, 관혼상제의 순서에 따라 세부 목차를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문답을 배치하여 예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부딪치게 되는 疑禮 또는 變禮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후인들의 예 실천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관혼상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方喪, 雜儀, 祠典 및 補遺까지 아우르고 있어 한강이 家禮뿐만 아니라 鄉禮와 邦禮까지 예학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선 조 예학의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예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면모까지 살펴볼 수 있다.

넷째, ‘彙類’ 형식의 예서 편찬을 통해 조선후기 영남지역 예학이 類聚·辨證·折衷의 학문 풍토 속에서 배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寒岡 鄭述,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 禮問答, 禮說, 禮學

I. 서론

조선시대 예학은 16세기 退溪 李滉이 대규모의 후학을 양성한 이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황 이전에는 관혼상제 중 제례를 중심으로 가문의 규범을 갖추어가던 분위기였는데, 이황의 시대에 와서는 상례와 관례·혼례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논의에 참여한 인물의 폭이 대폭 확장되었으며, 논거 자료도 광박해지고 논의의 엄밀함도 한층 심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황의 문인들에 의해 家禮 또는 四禮와 관련된 저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성황을 이루게 된다.

주지하듯이 이황의 문인 가운데 예학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가 寒岡 鄭述이다. 한강 자신이 「深衣製造法」을 비롯하여 다양한 예설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가장 많은 종의 예서를 저술함으로써 조선 후기 예학의 발전을 이룬 것은 물론 영남지역에 예학의 기풍을 일으키는 데도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이황 이후 영남지역 예학파의 중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기호의 沙溪 金長生과 더불어 17세기 전반 조선을 대표하는 예학자로 추앙된다. 또한 사후에는 그의 예설이 시대와 학파와 지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疑禮와 變禮 및 異說을 해결하고 실천하는 데 주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영남지역 예학자에 대한 연구 중 이황과 더불어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산출되었다.¹⁾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개괄해보면, 한강이 예

-
- 1) 서수생, 「寒岡 鄭述의 禮學」, 『한국의 철학』 13집,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금장태, 「寒岡 鄭述의 禮學思想」, 『유교사상연구』 4·5집, 한국유교학회, 1992.(『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에 수정 게재)
 이완재, 「寒岡 鄭述先生の 禮學」, 『동방한문학』 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배상현, 「寒岡 鄭述와 그의 禮學思想」, 『유학연구』 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이법직, 「寒岡 鄭述의 學問과 禮學」, 『도산학보』 6집, 도산학술연구원, 1997.
 노인숙, 「寒岡 鄭述의 禮學에 관한 研究」, 『유교사상연구』 12집, 한국유교학회, 1999.
 김현수, 「寒岡 鄭述의 敬義夾持와 禮」, 『한국철학논집』 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0.
 정경희,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 退溪學派의 禮學-鄭述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01집, 일지사, 2000.
 김현수, 「寒岡 鄭述의 禮學思想-『五先生禮說分類』를 중심으로」, 『동양예학』 6집, 동양예학회, 2001.
 彭林, 「寒岡 鄭述의 『五先生禮說』 初探」, 『남명학연구』 1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1.
 홍우흠, 「寒岡의 「上退溪李先生書」 一考」, 『동양예학』 6집, 동양예학회, 2001.
 도민재, 「寒岡 鄭述의 學問과 禮學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1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유권중, 「寒岡 鄭述의 修養論-禮學과 心學의 상호 연관의 고찰」, 『민족문화』 29집, 민족문화추진회, 2006.
 김현수, 「寒岡 鄭述의 禮學-禮問答을 中心으로」, 『한국학논집』 4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박종천, 「寒岡 鄭述의 禮論과 禮說」, 『태동고전연구』 2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학을 통해 四禮의 예속을 바로잡았고, 예속의 사회화에 기여했으며, 五服制를 바로잡아 위계를 세웠으며, 국가전례와 서원례를 바로잡았으며, 예학의 집성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논문²⁾, 한강의 예학이 고례를 통해 예의 본원을 추구했고, 「심의제조법」과 향음주례·향사례의 시행 등 실용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한 논문³⁾, 한강 예학사상의 특성을 예학의 전체적 체계를 구성하는 범위의 넓음과 규모의 방대함, 구조적 인식의 치밀성, 논리적 종합성 등으로 규정하고, 禮鄉의 학풍을 형성하고 계승한 점, 예학의 규모와 범위를 확립시킨 점, 유학의 사상적 깊이와 성격을 심어 준 점을 한강의 예학이 갖는 의미 있는 대목으로 꼽은 논문⁴⁾ 등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한 연구자는 古禮의 원형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했던 것이 한강 예설의 방법론적 특징이라고 규정하였고⁵⁾, 최근에는 「한강 예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한강의 예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요약 정리한 바 있다.

본고는 한강 예학의 의미와 특징을 검토한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강의 여러 예학 저술 가운데 아직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⁶⁾가 갖는 예학사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

소, 2012.

도민재, 「한강 예학 연구의 성과와 전망」, 『영남학』 25집, 영남문화연구원, 2014.

2) 배상현, 위의 논문, 955-970쪽.

3) 도민재, 위의 논문(2002), 173-176쪽.

4) 금장태, 위의 논문,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244-245쪽.

5) 박종천, 위의 논문, 15쪽.

6) 본고의 대본은 2009년에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예학총서』2에 수록된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이다.(이하 『휘류』로 약칭) 『한강선생사례문답휘류』에 대해서는 이완재의 위의 논문과 정경주의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 해제」(『한국예학총서』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에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해서 먼저 조선시대에 한 개인의 禮問答書를 모아서 단독 예서로 편찬하였던 흐름을 개괄하고, 한강의 禮問答이 수록된 예서가 어느 정도 편찬되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휘류』의 편찬 과정, 체재와 내용, 특징과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

II. 寒岡 禮問答書의 편찬

1. 조선시대 예문답서의 편찬

예문답서는 현실에서 맞닥뜨린 문제를 절충하고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주고받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예의 현실적 측면을 살피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학적 명망이 높은 인물일수록 주위로부터 疑禮나 變禮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마련이고, 그 질문에 상응하는 답변서를 많이 남기게 된다. 이러한 예문답서는 문답자의 사후에 문집 속에 포함되어 편찬 간행되는데, 문집의 양이 방대할수록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예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집에서 예문답서만 추출하여 독립된 형태의 예서로 재차 편집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조에 특정 인물의 예문답만을 모은 예서는 대개 ‘號+先生+禮說(問答/答問)’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李先生禮說類編』·『退溪喪祭禮答問分類』·『退溪先生喪祭禮答問』·『退溪先生喪祭禮說』·『退溪先生禮說問答』·『退溪禮解』 등 李滉(1501~1570)의 예문답을 彙編한 것이다. 이항 이후 인물의 예서로는 『尤菴先生禮說』·『尤菴經禮問答』

(宋時烈, 1607~1689), 『明齋先生疑禮問答』(尹拯, 1629~1714), 『南溪先生禮說』(朴世采, 1631~1695), 『寒水齋先生禮說』(權尙夏, 1641~1721), 『陶菴疑禮問解』(李緯, 1680~1746), 『星湖先生禮說』·『星湖禮說類編』(李瀾, 1681~1763), 『大山先生喪祭禮答問』(李象靖, 1710~1781), 『近齋禮說』(朴胤源, 1734~1799), 『梅山先生禮說』·『梅山先生經禮說』(洪直弼, 1776~1852), 『全齋先生禮說』(任憲晦, 1811~1876), 『良齋先生禮說』(田愚, 1841~1922) 등이 있다. 그리고 沙溪 金長生(1548~1631)의 『疑禮問解』와 月塘 姜碩期(1580~1643)의 『疑禮問解』 및 俛宇 郭鍾錫(1846~1919)의 『禮疑問答類編』처럼 예서 제목에 號나 先生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예문답서도 몇 종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들은 거개가 조선조 예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로, 그들의 문집에 포함된 예문답만을 추려서 별도의 예서로 편찬된 경우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것이 이황의 문인인 龔隱 趙振(1543~1625)이 1610년에 짚막한 識語를 붙여서 3권 3책의 목판본으로 편찬한 『退溪先生喪祭禮答問』이다. 이황의 예문답서가 거의 영남지역 출신이거나 학파적 친연성이 있는 학자에 의해 편찬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종의 예서가 지속적으로 재편집되어 나왔다는 것은 이황과 그의 예문답이 학파에서 또는 예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⁷⁾

한편, 이황 외의 영남지역 인물로는 이상정의 예문답을 모은 『대산선생상제례답문』이 유일하는데, 이 책은 이상정의 재전제자인 素隱 柳炳文⁸⁾

7) 이 외에도 이황이 문인과 주고받은 예문답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後松齋 金士貞(1552~1620)의 『溪門禮說』, 廣瀨 李野淳(1755~1831)의 『溪山禮說類編』·『溪山禮說類編別集』, 古溪 李彙寧(1788~1861)의 『禮說類編』, 菊隱 林應聲(1806~1866)의 『溪書禮輯』 등이 있다.

8) 柳炳文은 『常變通攷』를 편찬한 東巖 柳長源(1724~1796)의 일족이자 문인이다.

(1766~1826)이 편찬한 2책 규모의 필사본이다. 이상정은 小退溪라 불릴 정도로 이황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받은 적전으로 평가되며, 그 자신이 『決訟場補』를 비롯한 예서를 편찬하였고 273인이나 되는 대규모의 문인을 양성하며 많은 禮答書를 남긴 만큼 별도의 '예문답서'가 편찬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⁹⁾

반면에 기호지역의 경우에는 기호예학의 대표자인 金長生과 그의 아들 金集의 門人으로서 禮訟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서인예학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던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윤증·박세채·권상하·홍직필·임헌회·전우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예학자들의 '선생예설'이 상당한 체재와 규모를 갖추어 연속 기획물처럼 편찬되고 간행되었다.

영남에서는 이황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여 이황 사후부터 끊임없이 그의 예설을 담은 예서가 편찬됨으로써 이황의 예설이 師說로 존송되는 정도가 매우 강하였음을 보여주었고,¹⁰⁾ 기호에서는 한 인물에 집중되는 경향 대신에 김장생 이후부터 전우에 이르기까지 학파를 계승한 주요 인물들의 예서가 계속 산출되었다. 이렇듯이 '○○선생예설' 편찬이 영남에서는 한 인물로 '집중화' 또는 '단독화'가 이루어지고 기호에서는 여러 인물로 '분산화' 또는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9) 『玉川安先生禮說』(安餘慶, 1538~1592)과 『旅軒先生禮說』(張顯光, 1554~1637) 등도 '호+선생+예설'이라는 예서 명칭으로 편찬되었다. 그런데 안여경의 것은 『옥천선생유고』에 「禮經要語」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단편 저술이고, 장현광의 것은 「冠儀」·「昏儀」·「葬儀」 등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예서는 '예문답서를 모은 단독 예서'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10) 퇴계 이후 퇴계학파의 예학이 퇴계의 예설을 師說로 존송하는 경향이 강했고, 퇴계학과 사실 존송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퇴계의 예문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편집한 퇴계학파의 禮問答書이다.(박종천, 「16~7세기 禮問答으로 살펴본 退溪와 退溪學派 禮學」, 『퇴계학보』 125집, 퇴계학연구원, 2009, 123-124쪽)

대개 ‘號+先生+禮說’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이와 같은 예서는 疑禮나 變禮와 관련된 예문답만 추출하여 分類立門하여 자료를 정리한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생의 예설’을 편찬하여 학파나 학단의 定論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영남에서는 이항으로의 ‘집중화’ 또는 ‘단독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로 영남에서는 예서 이름에 ‘선생’이라는 말을 넣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2. 한강 예문답서의 편찬

한강은 31세에 『家禮輯覽補註』(1573)를 저술한 이후 『昏儀』(1579), 『冠儀』(1582), 『五先生禮說分類』(1603·1618), 『禮記喪禮分類』(1615), 『五服沿革圖』(1617), 『退溪先生禮說問答』(미상) 등의 예서를 편찬하였다. 그의 예설은 특히 『한강집』(1636년 초간본 간행)을 중심으로 하여¹¹⁾ 『오복연혁도』(1629년 간행)와 『오선생예설분류』(1629년 간행) 등의 예서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통용되었다.

11) 『한강집』은 1636년에 원집 12권, 별집 2권이 간행되었고, 이후 속집 6권이 간행되었으며, 1680년에 원집이 15권, 별집이 3권으로 늘어났고, 1841년에 이르러 원집 15권, 속집 9권, 별집 3권으로 정리되었다.(정우락, 『『한강집』해제』,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16-19쪽) 그리고 이는 『心經發揮』·『洙泗言仁錄』·『오선생예설분류』·『오복연혁도』·『威州志』·『蓬山浴行錄』·『年譜』·『附錄』·『言行錄』·『檜淵及門諸賢錄』 등과 합편하여 1978년에 『寒岡全書』로 출간되었다.

〈한강의 저술을 인용서목으로 수록한 영남지역의 예서〉¹²⁾

수록 예서 수록 인물·도서	家禮 附贅	禮儀 補遺	禮書 類編	家禮 便考	四禮 考證	常變 通攷	家禮 增解	常變 纂要	四禮 常變 纂要	士儀	家禮 補疑	四禮 輯要	贊祝 考證	儀禮 集傳	常變 輯略	常變 要義	四禮 要選
『寒岡集』	●	●	●	●	●	●	●	●	●	●	●	●	●	●		●	●
『五服沿革圖』										●	●						
『五先生禮說分類』			●	●		●	●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영남지역에서 편찬 간행된 예서에 한강의 예설이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위의 표는 ‘인용서목’이 명시된 영남지역의 예서만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면 훨씬 많은 예서에서 한강의 예설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선생예설분류』와 『오복연혁도』 등 전문 예설 연구 저작과 달리 한강 자신이 피력한 예설은 『한강집』 예문답에 실려 있다. 조선 후기 학자들은 대체로 『한강집』의 예문답에 수록된 한강의 예설을 채택하였는데, 그의 예문답이 20여권이 넘는 『한강집』 원집·속집·별집 등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실천하거나 예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한강집』의 해당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한강의 직전제자나 재전제자부터 『한강집』에 수록된 예문답을 類編하여

12) 각 예서의 편찬자는 다음과 같다. 家禮附贅(五休 安玗, 1569~1648), 禮儀補遺(三乘齋 鄭鎰, 1634~1717), 禮書類編(雷阜 孫汝濟, 1651~1740), 家禮便考(瓶窩 李衡祥, 1653~1733), 四禮考證(月梧堂 安晉石, 1644~1725), 常變通攷(東巖 柳長源, 1724~1796), 家禮增解(鏡湖 李宜朝, 1727~1805), 常變纂要(可庵 朴宗喬, 1789~1856), 四禮常變纂要(思省齋 金致珪, 1796~1864), 士儀(性齋 許傳, 1797~1886), 家禮補疑(四未軒 張福樞, 1815~1900), 四禮輯要(寒洲 李震相, 1818~1886), 贊祝考證(膠宇 尹胄夏, 1846~1906), 儀禮集傳(晦堂 張錫英, 1851~1926), 常變輯略(忍默齋 權必迪, 1860경~1940경), 常變要義(晦山 安鼎呂, 1871~1939), 四禮要選(松圃 洪在寬, 1874~1949).

예서를 꾸준하게 편찬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먼저 한강의 직전제자로 星州에 살았던 心遠堂 李埴(1572~1637)은 한강이 이황의 예문답을 편집한 것을 본떠서 한강의 예문답서를 편찬하면 ‘禮家之完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한강의 문집을 정리 편찬하는 일로 여력이 미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¹³⁾ 그리고 咸安·漆原에 살았던 道谷 安旻(1574~1636)은 『家禮附解』(1634)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주자가례』 본문 아래에 이황의 설을 붙이고 권점 아래에 한강의 설을 쓰고, 급문 제생이 이황과 한강에게 질의한 내용을 小註로 첨부하고, 자신의 설은 ‘按’ 자 아래에 넣어 모두 2,400여 조목에 3권 분량으로 정리한 것이다.¹⁴⁾ 이 책의 현전여부는 미상이나, 한강의 예설을 대폭적으로 취택한 최초의 예서가 아닐까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성주에 살았던 耻耻堂 李益銓(?~1679)은 18권 6책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禮疑答問分類』(표제는 ‘禮疑答問’)를 편찬하여 이황·한강·장현광·김장생·정경세의 예설을 수록하였는데,¹⁵⁾ 당시까지 편찬된 한강의 예문답서 가운데 가장 상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익전의 從弟인 李惟銓¹⁶⁾이 편찬했던 것인데, 나중에 이익전이 미비한 점을 보완 정리하여 서문은 쓴 해가 1672년이고, 1732년 이익전의 손자 李石經

13) 李埴, 『心遠堂集』, 卷3, 「遺事」: 府君嘗言 禮學近弊 無人愛尙 況於變禮萬殊 雖以博識之士 尙有臨機眩惑之弊 鄭先生輯李先生答疑之書 編成二卷 今若蒐集鄭先生答問 合爲 壹書 則可爲禮家之完書 而旣管先生文集修正之書 力未暇及 每以是爲遺恨焉.

14) 安旻, 『道谷集』 卷2, 「家禮附解序」: 余嘗受學于寒岡鄭先生之門 得聞五先生禮說 繼講此書 反覆考正 有足以啓發蒙蔽者 蓋先生之所據而爲正案者 大率得聞於退陶李也 因竊哀粹敍次 謂之家禮附解.

15) 李益銓, 『禮疑答問分類』, 「跋」(李石經): 茲聚退溪寒岡旅軒沙溪愚伏本文集 一一校讐 精寫一帙. 이익전은 心遠堂 李埴의 아우인 山居齋 李埴(1580~1629)의 아들이다.

16) 李惟銓은 心遠堂 李埴의 아들이고, 한강의 문인인 藤庵 裴尙龍(1574~1655)의 사위이다.

이 발문을 쓴 시점에 완전히 성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서는 이황과 한강 이하 정경세에 이르기까지의 예학적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한강의 『오선생예설분류』 체재를 준용하여 邦禮와 鄉禮와 四禮와 雜禮를 두루 검토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한강이 沃川에 머물며 예를 강론할 때 들었던 예설을 정리한 全仲承의 『寒岡先生家禮訓義』도 편찬되었다.¹⁷⁾

한강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정한 영향을 받은 鶴沙 金應祖(1587~1667)는 1645년에 4권 2책의 『四禮問答』을 편찬하여 이황·김성일·류성룡·한강·장현광·정경세 등 이황 이후 자신의 스승까지의 예설을 수록하였다. 이는 趙振이 편찬했던 『退溪先生喪祭禮答問』이 분류 체계가 없기 때문에 事例를 찾는 데 매우 불편하여 관혼상제 4綱 아래에 46개의 節目을 나누어서 편찬한 것이다. 『사례문답』을 편찬한 직접적인 목적은 하나의 체계 속에 예설을 정리하려는 것이고, 이는 이황학과 내에서 사상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설에서도 경향성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낸다.¹⁸⁾

한강의 재전제자인 대구의 警廬 孫處恪(1601~1677)은 이황·한강·정경세의 예설 가운데 상례·제례와 관련된 예문답을 초록하여 『喪祭禮問答』을 만들었다.¹⁹⁾ 그리고 星州 출신의 晦南 朴洵(?~?) 역시 이황·한강·장

17) 全命龍, 『瀕西集』, 卷3, 『寒岡先生家禮訓義序』: 蓋嘗聞君子所過者化 余於寒岡鄭先生驗之矣 昔在甲寅年間 先生承召指洛路 出沃之陽山縣 辭病留行于順陽郵館幾廿餘日 一縣學者 全集 問禮於函丈之間……余之家叔實預摳衣之列 傳寫訓義於冊頭 使人見之 不啻若刮眼之金篦 連城之拱壁也……家叔諱仲承 上舍諱舜賓 皆陽縣人也.

18) 고영진,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정경세·김응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263-264쪽.

19) 李光靖, 『小山集』, 卷11, 『贈戶曹參議孫公墓碣銘』: 嘗手抄退溪寒岡愚伏三先生禮說 名

현광·정경세의 상례 관련 예문답을 모아서 『四先生喪禮分類』를 편찬하였다.²⁰⁾ 이로부터 한참 뒤에 밀양 출신의 大訥 盧相益(1849~1941)은 『退溪寒岡星湖三先生禮說類輯』을 편찬해 이황과 한강의 예학이 星湖 李瀾으로 계승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학 학통의 연결은 노상익의 10세조인 沃村 盧克弘(1553~1625)이 한강의 생질이자 문인이었고, 한강의 14대손인 磊軒 鄭宗鎬(1875~1954)가 노상익의 사위이며, 노상익 자신이 이익의 학통을 계승한 性齋 許傳의 문인이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한강의 예설은 그의 직전제자인 이육이 한강만의 예설을 모아 예서의 형태로 편찬하려고 계획을 하였던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오랫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 예서의 형태로 편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황·김성일·류성룡·한강·김장생·장현광·정경세·이익 등의 예설을 합쳐서 만들었고, 이황·한강·장현광·정경세의 예설이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영남지역에 예학의 학풍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이고, 그와 동시에 영남예학의 중추적인 학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강의 예설이 이렇게 많은 예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한강의 예설 또는 예문답만을 수록한 것은 보이지 않고, ‘禮家之完書’를 꿈꾸었다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이육의 ‘생각’만이 있었을 뿐이다. 『한강선생가

曰喪祭禮問答.

20) 鄭宗鎬, 『磊軒集』, 卷5, 「四先生喪禮分類序」: 吾鄉之晦南朴公洵 尙德好禮君子也 病後人之居喪值變 無以折衷 則嘗於草土讀禮之暇 蒐取退陶·寒岡·旅軒·愚伏四先生論禮答問中有關於慎終追遠處 彙類分門 循序而不亂 節節是禮家三尺 疑案決訟 是書也爲冊合一 弓 立目凡二十六.

례훈의』가 한강만의 예설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자가례』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자료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한강의 심오한 예설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 실물도 전하지 않으므로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비록 『한강집』에 ‘答問’이라는 제목 아래 한강과 왕복한 예문답서를 별도로 수록하기는 하였지만, 체계와 두서를 갖추지 못해 考據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예서에 수록된 인물 중 김장생과 이익을 제외한 영남 지역의 인물인 이황·김성일·류성룡·한강·장현광·정경세 가운데 예학적 위상과 예학 저술 및 예문답의 분량과 심도를 따져볼 때 이황을 제외하면 한강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강만의 예문답서가 별도의 예서로 편찬되지 못한 것은 뜻밖이라고 하겠다.

Ⅲ.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의 편찬과 의의

1. 편찬 과정

『휘류』를 편찬하기 시작한 이는 한강의 7대손 慕庵 鄭煥²¹⁾이다. 그러나 그는 한강의 喪禮와 祭禮 관련 예문답을 수집하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그의 아들 拙叟 鄭垸(1785~1858)이 계승하여 冠禮와 婚禮와 方喪을 보완하여 완성하고 이름을 ‘四禮彙類’라고 함으로써 사례 체재의 예문답서로 일단 모양새를 갖추었던 듯하다. 그 뒤 정완의 손자 新齋 鄭

21) 『居喪疑禮筭錄』을 저술한 楊若齋 鄭東瓊(1734~1801)의 아들이다.

元永(1849~?)이 小訥 盧相稷(1855~1931)에게 목차의 교감을 받아서 무진년(1928) 겨울에 4권 2책의 석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니까 한강의 7대손과 8대손의 노력으로 『휘류』의 편찬이 1차적으로 종결되었고, 10대손에 이르러 교정을 거쳐 온전한 모습의 『휘류』가 간행되었던 것이다.

『휘류』의 간행 과정에는 한강의 후손 외에 노상직이 참여하였다. 그는 앞서 언급한 노상익의 아우이다. 10세조가 한강의 문인이었고, 그 자신이 한강의 학맥을 이은 허전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노상직 외에 이 책을 간행하는 과정에 參奉 金容禧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²²⁾ 김용희는 淸道 사람으로 본관이 金海이며, 三足堂 金大有(1479~1552)의 11세손이다.

7대손이 시작하여 10대손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趙振의 『退溪先生喪祭禮答問』처럼 특별한 목차를 설정하지 않고 문집에 수록된 질문과 답변을 나열하는 형태로 편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었을 것이다. 조진이 편찬한 책이 이황의 예문답을 모아 간행한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는 예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황의 예문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행례에 참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합당하게 조처할 예문을 찾으려면 목차가 설정되어야 하며, 또 그 목차에 알맞은 문답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分門立目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뿐더러 한강의 문집에 수록된 예문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편찬의 진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의 후손들은 한강의 문집뿐만 아니라 여타의 서적에

22) 鄭遠永,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跋』: 然金參奉容禧甫 用心於師門者 勤且苦矣.

수록된 한강의 예문답까지 찾아내어 수록해야 한강의 사례문답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 착수한 뒤로 백여 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한강의 사례 관련 예문답이 총망라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강의 禮說은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이미 조선중기 이래 예를 논하는 학자들의 중요한 전거로 널리 인용되었고, 이후에 편찬된 각종의 禮書에도 그 설이 널리 채록되어 있었다.²³⁾ 그럼에도 이를 별도의 책으로 편집한 이유는 “이 책에 편집된 내용은 變禮로 老先生(이황)과 우리 先祖(한강)께서 단안을 내린 것이니, 그 사이에 누가 송사를 일으키겠는가.”²⁴⁾라는 정완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휘류』는 이황과 한강이 四禮에 대해 단안을 내린 예설을 모은 것으로, 이 예설에 대해 그 누구도 시비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휘류』가 완성되어 간행된 시기는 일제강점기라는 극변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휘류』는 꺼져가는 조선의 전통 예속을 보수하려는 흐름의 일환이었으며, 한강의 예설을 구심점으로 하여 격변의 시대에 대응하려고 했던 지식인들의 노력이기도 하였다.

2. 체재와 내용

『휘류』는 권두에 목록과 범례가 있고, 권1에 관례·혼례·상례1, 권2에 상례2·方喪, 권3에 제례1·제례2, 권4에 雜儀·祠典·附篇 등을 수록하였고, 권말에는 鄭堉의 발문(1842), 盧相稷의 발문(1928), 鄭宗鎬의 발문

23) 정경주, 위의 해제, 12쪽.

24) 鄭堉,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跋』: 是編乃禮之變者 而老先生及吾先祖斷案之則 更誰聚訟於其間哉.

(1928), 鄭遠永의 발문(1928) 등 4편의 발문을 수록하였다. 각 권에 수록된 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권두	目錄	
	凡例 (4 조)	
권1 (77 조)	冠禮 (3 조)	擇日 宿賓 儀節
	婚禮 (4 조)	儀節 主婚 婦見廟 臨婚有喪待服除
	喪禮1 (70 조)	主喪 喪人位次 襲 握手 銘旌 治棺 腰首絰 婦人喪服 成服 父在母喪 本生服 出後服 童子服 侍養服(妻爲夫之侍養服附) 庶母服 妾服 承重庶孳爲生母服 親前持菴功服 疊遭 菴功持服 殯廳序立 上食奠 上食時扱匙正筋 朔望奠 聞喪 奔喪 營葬山運 祀土地 灰炭 松脂 朝祖 發鞠 葬時當有告 柩衣 玄纁 襲 題主屬稱職啣 陷中 傍題 夫神主 妻神主 外家神主 兄弟神主 子女神主 題主人服色 謝賓 合祔葬 返魂 侍墓 廬墓 虞祭 虞祭利成 虞卒哭變除 祔祭 初喪遇忌日 喪中忌祭 喪中節祀 喪中墓祭 喪中新墓祭 喪中省墓 葬時不遑省舊墓 喪中祭先服色 喪祭拜禮 改葬祭非禮 練服 練奠 練後止朝夕上食哭 朔望會哭 聞喪晚者祥未除服 追喪之非 追服 戰亡人服
권2 (47 조)	喪禮2 (37 조)	禫前朔望 禫計聞 禫祭 禫日待客之非 禫服色 脫服 吉祭 新主入廟 改題主 遞遷 奉遷 最長房 心喪練祥禫 心喪上朝夕食 并有喪葬禮 并有喪持服 并有喪祭禮 服中死 嫁女主 私親喪 因喪而冠 次子有行禫事 寓中禫事 速葬 改葬 改葬遺祖奠別撰告文 改棺 偕葬 輕重先後 改葬玄纁明器銘旌 重服中緇服 改葬祭禮 改葬虞祭 改葬服 師友服 喪中弔慰 弔 孤哀稱號 居喪毀瘠 居喪雜儀
권3 (67 조)	方喪 (10 조)	國恤服制 商議禮曹啓目 國喪節目 答禮曹判書 答崔季昇 答禮曹判書 國喪奔哭 國恤私服 國恤私祀 國葬前不用肉
	祭禮1 (59 조)	廟制 奉安位次 班祔 共一卓 祭儀 祭饌 齋戒 沐浴 祭酒 獻 祝版 闔門 燭 香卓 參謁 祭服 時祭 時祭卜日 禴祭 禴祭用九月十五日 忌祭 忌祭合祭考妣 閏月忌日 忌祭服色 忌日待客 紙勝 殯祭 俗節茶禮 薦新 茶 攝祀 兄弟神主一龕 宗子絕嗣 立後 無後神主 承重孳子所生親祭 外家奉祀 外黨祭 俗節遇忌日 寓中行祭 臨祭有喪 祭饌傾覆不待更備 生辰祭 攝主不祭禴 朔望薦 朔望獻 祔主入廟 神主追改 支孫紙勝祭迎神 大祥前日告遷 心喪中與祭 家廟有灾慰安 疊遭喪禫祭 父在母喪再期 練時節次 喪服弊破 因練改造 國喪中脫服 婦人在他所哭而脫服
권4 (41 조)	祭禮2 (8 조)	各祝式 妻喪祝 合祔葬祝 題主祝禴 虞祭祝 祭禮祝 墓祭祝 父服中死子承重之非
	雜儀 (15 조)	墓祭 墓祭服色 先墓加上祭 祭土地神 墳墓火變 廬墓後祔祭 歸宗 諱 妻親稱號 一字師 拜不拜 夫婦久別而拜 婦人冠服 深衣 下帳 絰散垂
권4 (41 조)	祠典 (19 조)	鄉校位版 釋典儀 鄉校移還安 川谷院號 位版題版 奉安 位次 享儀 祭享品節 謁廟 西溪祭物 川谷移還安 川谷祝 告由 祭冠 神廚 院規 書院主祭 國恤中書院祭服

	附篇 (7조)	班祔 并有喪變除 外家奉祀 祖奠遺奠 合祔葬祝 庶孫代嫡孫繼喪 補遺
권말	跋 (4편)	拙叟 鄭垞(1842), 小訥 盧相稷(1928), 磊軒 鄭宗鎬(1928), 新齋 鄭遠永(1928)

표에 보이듯이 『휘류』는 관례 3조, 혼례 4조, 상례 107조, 제례 67조를 비롯하여 방상 10조, 잡의 15조, 사전 19조, 부편 7조 등 모두 2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관혼상제 사례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상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제례도 권3 전체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그런데 『휘류』가 四禮를 표방하였음에도 사례가 아닌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방상·잡의·사전·부편 등이 그것인데, 이는

그 조목이 관혼상제 넷이고, 상례 가운데는 方喪 한 조목을 따로 세웠으니 대개 禮曹에 있을 때 주고받았던 절목이다. 또 師門에서 문답한 여러 조목을 취하여 부류에 따라 기록하였다. 선생의 장례 때 문인이 旅軒 張先生에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있고, 沙溪 金文元公의 『疑禮問解』 가운데도 선생의 설을 인용한 것이 있어, 이것들을 아울러 附篇으로 삼았다.²⁵⁾

라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四禮 외에 方喪와 附篇이 수록된 배경을 살필 수 있다. ‘방상’은 무신년(1608) 2월에 선조가 승하하였을 때 예조 판서가 國喪의 服制를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부편’은 7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①‘班祔’는 김장생이

25) 盧相稷,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跋』: 其目有四 冠婚喪祭 於喪禮中 別立方喪一目 蓋春曹之所往復及節目也 又取師門答問諸條 隨類而錄之 先生葬禮時 門人有稟質于旅軒張先生而有答辭 沙溪金文元公問解中 亦有引先生說者 并爲附編.

한강에게 들었던 답변을 宋浚吉에게 언급한 것이고, ②‘并有喪變除’ ③‘外家奉祀’는 이항이 한강의 질문과 편지에 답한 것이다. ④‘祖奠遺奠’ ⑤‘合祔葬祝’ ⑥‘庶孫代嫡孫繼喪’은 모두 한강의 장례 때 장현광이 답한 것이다. ⑦‘補遺’는 李厚慶(字 汝懋, 號 畏齋)이 묻고 한강이 답한 문목인데, 『한강집』에는 없던 것을 『회류』를 편찬하면서 이후경의 문집²⁶⁾에서 찾아서 추가로 보충한 것으로, 제현의 문집에 산견되는 예문답을 하나라도 더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위 인용문에는 雜儀와 祠典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다. ‘잡의’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식과 복식과 호칭 등을 수록한 것이다. ‘사전’은 향교나 서원의 의례를 다룬 것으로 祭禮에 속하지만, 시행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鄉禮와 學禮로 분류되기 때문에 四禮와 구별되는 별도의 장을 마련한 것이고, 또 이는 『오선생예설분류』에 설정된 항목이기도 하다.

주목할 것은 『회류』의 체재와 내용이 한강의 문인 李益銓이 편찬한 『禮疑答問分類』(이하 『분류』)의 것을 많이 준용했다는 점이다. 冠禮 부분만 가지고 두 책의 항목과 문답 내용을 비교해보자.

『분류』 항목	문답 내용	『회류』 항목	문답 내용
擇日	任卓爾問正月內擇…於次月耶 答曰漢惠帝去…而冠者矣	擇日	任卓爾(屹號龍潭)問正月內擇… 於次月耶 漢惠帝去…而冠者矣
	曲禮凡卜筮日句之外曰遠某日(見心喪練祥 禮宋浚吉問)		없음
宿賓	任卓爾問宿賓或曰…未知孰是 答曰宿進也宿…或可知也	宿賓	宿賓或曰…未知孰是 宿進也宿…或可知也
	又問前日冠儀…語意未詳 答曰將以行禮…未詳者乎		前日冠儀…語意未詳 將以行禮…未詳者乎

26) 李厚慶, 『畏齋集』, 卷1, 「上寒岡先生問目 十一條」.

冠儀	任卓爾問楊氏曰書…可得聞歟 答曰書儀卽司…禮卽儀禮	儀節	楊氏曰書…可得聞歟 書儀卽司…禮卽儀禮
	又問陳設註司…洗東何謂 答曰以堂深者…十尺云耳		陳設註司…洗東何謂 以堂深者…十尺云爾
	又問厥明陳冠…有官爵耶 答曰古無大夫…官云未詳		厥明陳冠…有官爵耶 古無大夫…官云未詳
	又問納履出註…未詳其意 答曰若宗子自…而不能矣		納履出註…未詳其意 若宗子自…而不能矣
	又問再加繫鞋…等者何意 答曰繫鞋之釋…加敬之意		再加繫鞋…等者何意 繫鞋之釋…加敬之意
	又問三加若襪…云者是耶 答曰吐是誰所…爲彌云耳		三加若襪…云者是耶 吐是誰所…爲彌云耳
	없음		襪衫納靴…屹所未詳 三加之禮…李先生矣
	又問賓至主人…相爲拜耶 答曰主人之先拜…賓答之也		賓至主人…相爲拜耶 主人先拜…賓答之也
	又問禮賓之後…拜而歸歟 答曰鄉飲酒禮…禮有終也		禮賓之後…拜而歸歟 鄉飲酒禮…禮有終也
	又問冠禮賓必…冠者何義 答曰冠而字者…重其禮也		冠禮賓必…冠者何義 冠而字者…重其禮也
	又問禮賓下司…知行何事 答曰贊有主人…進賓等事		禮賓下司…知行何事 贊有主人…進賓等事也
	없음		冠儀尊則…比例也耶 恐然
	없음		其父從出…子而出耶 然
又問冠儀四襟…未詳其制 答曰未詳	冠儀四襟衫…未詳其制 未詳		
字冠者	見疑禮問解	없음	
醮禮	並見疑禮問解		
冠變禮 (臨冠有喪)			

표에서 보듯이 『분류』와 『휘류』는 거의 같은 항목과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두 예서의 차이점을 굳이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 첫머리의 ‘任卓爾問’이 ‘任卓爾(屹號龍潭)’으로 바뀌고, ‘答曰’을 생략한 점이다. 이는 『한강집』의 체제를 준용한 것으로 『휘류』 「凡例」에서 밝힌 바 있다.²⁷⁾

둘째, 글자의 출입이다. 冠儀 2번째 문답에서 ‘耳’를 ‘爾’로 바꾼 것, 6번째 문답에서 吐를 ‘彌’에서 ‘旆’로 바꾼 것, 8번째 문답에서 ‘主人之先拜’를 ‘主人先拜’로 바꾼 것, 11번째 문답에서 ‘進賓等事’를 ‘進賓等事也’로 바꾼 것 등이 차이가 날 뿐이라서 거의 같다고 해서 무방할 것이다.

셋째, 항목의 명칭도 ‘擇日 宿賓 冠儀’와 ‘擇日 宿賓 儀節’로 대동소이하다.

넷째, 擇日 2번째 문답에서 宋浚吉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휘류』에서는 삭제하였다. 『분류』에 설정된 字冠者, 醮禮, 冠變禮의 臨冠有喪 등 3항목은 모두 김장생의 『疑禮問解』에 나오는 것으로 『분류』에서는 『의례문해』를 참고해서 보라는 말만 덧붙이고 구체적인 문답은 수록하지 않았고, 『휘류』에서는 3항목의 명칭조차 수록하지 않았다. 이는 한강의 예문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儀節 7번째 항목은 6번째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懸吐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한 것이기에 추가하였고, 또 儀節 12번째 항목과 13번째 항

27) 『휘류』 「凡例」 2번째에서 “질문을 먼저 쓰고 답변을 극항에 썼고, 본문에 따라 한 글자도 보태거나 줄이지 않았는데, 다만 ‘答’ 자는 쓰지 않고 ‘問’ 자 위에 이름을 쓰기도 하고 자를 쓰기도 하여 한결같이 원집을 따랐으며, 휘 아래에 4자를 나누어 쓴 것은 편집할 때 증보한 것이다.[先書問條 答條則極行書之 依本文無一字增刪 而但答字不書 問字上 或書諱啣 或書表德 一依原集 而諱下四字分書 編集時增補]”라고 하였다.

목을 설정하여 간단한 문답을 추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휘류』를 편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강의 예문답이 상세하게 수록된 『분류』를 대본으로 삼아서 항목을 설정하고 그 항목과 관련된 한강의 예문답만을 간추렸으며, 여타의 문답은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분류』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약간 추가하였다.

그렇다면 『휘류』가 『분류』를 대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휘류』가 四禮를 표방한 이상 ‘관혼상제’가 큰 목차로 이미 선정된 것이다. 문제는 관혼상제 안에 포함될 세부 목차를 정하는 것이다. 『분류』보다 앞서 편찬된 조선조의 가례서 가운데 목차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정된 것으로는 김장생의 『疑禮問解』 정도가 있을 뿐이다.²⁸⁾ 謙齋 朴聖源(1697~1767)의 『禮疑類輯』, 東巖 柳長源(1724~1796)의 『常變通攷』, 鏡湖 李宜朝(1727~1805)의 『家禮增解』 등의 목차가 가장 상세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분류』보다 늦은 18세기에 편찬된 것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분류』라는 예서는 당시까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세한 목록화를 시도했던, 그리고 한강의 예문답이 상세하게 수록된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휘류』가 『분류』를 대본으로 삼은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분류』는 편찬자 한 사람의 식견과 안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스승인 한강의 初編 원고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즉

28) 『의례문해』에는 543개의 예문답이 수록되어 있고, 김장생과 한강의 문답은 深衣, 握手, 絞帶, 班紉 등 상례에 관계되는 것들이며, 각 조항에 대한 고례적 적용이나 검증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한기범, 「朝鮮中期 湖西·嶺南 禮家の 禮說交流-『疑禮問解』의 分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집, 조선시대사학회, 1998, 4-8쪽)

한강이 편찬한 『五先生禮說分類』와 『退溪先生禮說問答』의 체재를 바탕으로 하여 이황·한강·장현광·김장생·정경세의 설을 아울러서 조목 아래에 함께 附入하였다.²⁹⁾ 그렇다면 『회류』를 편찬하는 데 대본이 된 것은 『분류』이고, 『분류』가 편찬될 수 있었던 데는 한강의 두 예서가 큰 힌트를 준 셈이다. 그러므로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한강이 마련한 편제 아래에 한강이 논변한 예문답을 수록한 것이 바로 『회류』인 것이다.

3. 특징과 의의

한강의 예문답을 체계화하여 『회류』를 편찬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회류』는 한강이 四禮의 疑禮와 變禮에 대해 문답한 내용을 모은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를 만났을 때 살펴보기 편리하도록 부류별로 모아 배치하였다. 『한강집』의 분량 자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한강집』에 수록된 예문답이 질의자의 관심에 대응하여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예문답의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례의 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이 편제된 예서를 만들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었다. 즉 주희와 이황의 방대한 서간문이 『朱子書節要』와 『退溪書節要』로 요약 정리됨으로써 책을 펼치면 학문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듯이, 四禮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문답을 수록함으로써 예를 시행하면서 겪게 되는 의례와 변례를 보다 쉽게 참고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29) 李益銓, 『禮疑答問分類』, 「序」: 肆我先師寒岡先生 惟是之病 既纂宋時諸賢禮說 又輯退溪李先生答問 分類成書 而變禮無窮 猶有所未備者 從弟惟銓 遂因先師抄編 又添寒岡旅軒兩先生所答 合爲一秩 而觀夫所添 門目不明 品彙多紊 倉卒急遽之間 尙有難攷之患矣 茲余輒不自揆 敢爲類輯 而沙溪先生疑禮問解 證援明白 易於破惑 愚伏先生文集中 亦有可攷者 故并取而附入於各條各目之下 其於當疑攷證之便 / 「凡例」: 凡編次 一依先師所編.

또 한강 집안은 家學으로서 예학을 계승하는 면모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조선조를 대표하는 예학자인 한강의 예문답서를 편찬하는 것은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선조의 예문답만으로 집안에서 茶飯과 裘葛처럼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四禮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鄭宗鎬가 발문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발시키는 것은 선조의 가르침만한 것이 없고 집안에서 실행하는 것은 四禮가 중요하니, 이 때문에 『회류』를 편찬하였다.”³⁰⁾고 한 것처럼 한강과 비슷한 시기의 김장생이나 장현광이나 정경세와 같은 걸출한 예학자의 예설도 좋은 참고서가 될 수는 있지만, 자기 선조가 남긴 예설이 후손들에게 더 친밀하고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편찬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류』는 기본적으로 한강 후손의 집안에서 실행하는 예의 매뉴얼(manual)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一家之禮書의 면모를 띤다.

물론 이 책을 편찬하기로 결정하고 자료를 정리했던 鄭煥과 鄭堉 부자의 생각은 자기 집안에서만 보관하여 考據할 자료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하여 많은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을 갖추는 일이 버거울뿐더러 힘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1차적인 정리 작업에 만족하고 추가적인 보완 작업은 후손의 노력을 기다려야 했다.³¹⁾ 그리하여 대략 100여년이 지나서 『회류』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으로써 가문의 예학지

30) 鄭宗鎬, 『四禮彙類跋』: 感發人心 莫如先訓 有家體行 四禮爲重 此彙類之所以編緝也.

31) 鄭堉,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跋』: 但藏于一家 則只是一家之寶而已 意將公共于世 而力既不逮 且書姑未完 載乎此者 或有遺乎彼 載乎彼者 亦或有遺乎此 則廣告于淵源各家 如有眞的可據文蹟 則添補然後 可成全書 故畧書所志 以俟成就之日云爾.

침서가 마련되었고 한강의 사례 문답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

또한 '회류' 형식의 예서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부분에 얼마나 많은 횃수의 질의 또는 답변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학적 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강이나 한강 문인의 예학적 관심을 파악할 때, 『한강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학적 수치를 산출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관혼상제로 분류하고 그것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배치한 『회류』의 경우에는 수치 산출이 무척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인물의 예학적 관심의 정도는 물론 각 시대별 지역별 학파별 예학 수준의 엄밀도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회류' 형식의 예서 편찬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예학에서 보여준 類聚·辨證·折衷의 학문 풍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한강의 『五先生禮說分類』, 李惟樟의 『二先生禮說』, 李象靖의 『決訟場補』, 柳長源의 『常變通攷』, 李宜朝의 『家禮增解』, 柳疇睦의 『全禮類輯』, 張福樞의 『家禮補疑』, 李震相의 『四禮輯要』 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예설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예설 간의 異同과 합당성을 변증하는 한편, 諸說을 절충하여 단안을 내리거나 새로운 설을 입론하는 일련의 학문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理學에 있어서 李滉의 『宋季元明理學通錄』, 曹植의 『學記類編』, 柳健休의 『異學集辨』, 經學에 있어서 李彦迪의 『中庸九經衍義』, 李徽逸·李玄逸의 『洪範衍義』, 류장원의 『四書纂註增補』, 류건휴의 『東儒四書解集評』 등의 저술 경향과 同軌 속에서 산출된 것들이다. 유취·변증·절충의 방법론적 시도가 영남지역 학문의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에 예학에 있어서도 유취·변증·절충의 경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²⁾

32) 줄고, 위의 논문, 239-240쪽.

『휘류』는 한강의 여타 예학 저술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한강은 가례와 방례, 服制와 禮經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예서를 편찬함으로써 예학을 독립된 학문 영역의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³³⁾ 그런데 후대 학자들에 의해 널리 채택된 한강의 예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강의 문집에 수록된 禮問答書에 집중되어 있다. 사제지간에 오고간 예문답 가운데는 예조문의 해석을 다룬 초보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도 있지만, 三禮와 『朱子家禮』 및 『國朝五禮儀』에 명문화된 조문이 없거나 조문이 일치하지 않거나 당대에 시행하기 어렵거나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 훨씬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문의 연구·선택·확정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時宜에 맞게 변통하거나 의리의 잣대로 일으키거나 이설을 절충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당대에 통용 가능한 예 실천 방법을 的確하게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강의 학문, 특히 예학의 특징을 실천적 또는 실용적이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예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휘류』는 한강의 문집 『한강집』에 수록된 예문답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자료에 산견되는 한강의 예문답을 종합하여 四禮의 체계 속에 정리한 예서이다. ‘『한강집』 예문답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휘류』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3) 금장태, 위의 논문, 235쪽.

첫째, 『한강집』에 수록된 四禮 관련 문답을 추출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한강의 예설 관점을 집중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조망할 수 있다.

둘째, 관혼상제의 순서에 따라 세부 목차를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문답을 배치하여 예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부딪치게 되는 疑禮 또는 變禮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후인들의 예 실천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셋째, 관혼상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方喪, 雜儀, 祠典 및 補遺까지 아우르고 있어 한강이 家禮뿐만 아니라 鄉禮와 邦禮까지 예학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선조 예학의 틀을 정립함과 동시에 예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면모까지 살펴볼 수 있다.

넷째, ‘彙類’ 형식의 예서 편찬을 통해 조선후기 영남지역 예학이 類聚·辨證·折衷의 학문 풍토 속에서 배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휘류』에는 67명의 질문과 한강의 답변이 있고, 그 가운데 龍潭 任屹(1557~1620)이 가장 많은 73조목의 질의를 하였으며, 한강 자신이 이황에게 질문한 내용도 80여 조목이나 된다. 답변자로서 한강은 『주자가례』의 자구 해석과 현토 등 단순한 문제부터 『주자가례』의 이해와 준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절충하려고 노력하였다. 질문자로서 한강은 이황과의 예문답을 통해서 『주자가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및 관습과 배치될 경우에 이를 時宜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였고, 非禮의인 요소를 禮經이나 『주자가례』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순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자신이 變禮의 상황에 처해서 예문을 적확하게 검토 고증하여 定論을 도출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황의 예설을 묵수하거나 고수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후학들에 의해 준행할 만한 전범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盧德奎, 『禮說類輯』

安挺, 『道谷集』

李光靖, 『小山集』

李埈, 『心遠堂集』

李益銓, 『禮疑答問分類』

李厚慶, 『畏齋集』

全命龍, 『瀨西集』

鄭述, 『寒岡集』·『寒岡全書』(『五先生禮說分類』·『五服沿革圖』)

鄭宗鎬, 『磊軒集』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 『한국예학총서』2, 2009.

고영진, 『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금장태, 「寒岡 鄭述의 禮學思想」,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김현수, 「寒岡 鄭述의 禮學-禮問答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169-214쪽.

남재주, 「조선후기 예학의 지역적 전개 양상 연구-영남지역 예학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도민재, 「寒岡 鄭述의 學問과 禮學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1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199-228쪽.

박종천, 「16~7세기 禮問答으로 살펴본 退溪와 退溪學派 禮學」, 『퇴계학보』 125집, 퇴계학연구원, 2009, 93-142쪽.

_____, 「寒岡 鄭述의 禮論과 禮說」, 『태동고전연구』 2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

구소, 2012, 1-25쪽.

배상현, 「寒岡 鄭述와 그의 禮學思想」, 『유학연구』 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5, 939-971쪽.

이완재, 「寒岡 鄭述先生의 禮學」, 『동방한문학』 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1-16쪽.
정경주, 「『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 해제」, 『한국예학총서』2,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정우락, 「『한강집』 해제」,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한기범, 「朝鮮中期 湖西·嶺南 禮家의 禮說交流-『疑禮問解』의 分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집, 조선시대사학회, 1998, 1-38쪽.

Abstract

The Compilation and Significance of *Master Hangang's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the Four Ceremonial Manners Grouped into Similar Categories*

Nam, Jae-Ju

This study examines *Master Hangang's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Four Ceremonial Manners Grouped into Similar Categories*: its compilation process, system,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This book includes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manners by Gu Jeong(1543~1620) whose pen name was Hangang. He was an exceptional scholar studying ceremonial manner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17th century, and also a leading master of studying ceremonial manners of the Yeongnam area. This compiled book focuses on the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manners included in *the Hangang Collection of Writings* by Hangang, along with his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ceremonial manners found in other books, organizing the systems of the four ceremonial manners about coming of age, weddings, funerals, and ancestral memorial services. The book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following.

First, the book selected and compiled the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the four ceremonial manners found in *Hangang Collection of Writings*, showing Gu Jeong's view on those manners intensively and clearly.

Second, the book made it easy for descendants to practice ceremonial manners. It established detailed content lists in the order of the four ceremonial manners, put down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ceremonial manners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rituals, and presented concrete criteria on which to settle confusing or incidental manners confronting people in the

course of practicing various rituals.

Third, the book includes manners of national funerals, many other minor rituals, and a supplementary appendix in addition to the four ceremonial manners. This reveals that Hangang extended the range of studying manners to village and national rituals beyond family ceremonies, established the frame of studying manners of the Joseon Dynasty, and at the same time, prepared a turning point for studying manners.

Fourth, the book was compiled in the way of grouping similar categories, which shows that studying manners in the Yeongnam area was developed in the academic atmosphere of grouping similar contents, and dialectically analyzing and compromising them.

Key Word

Gu Jeong with the pen name of Hangang(寒岡 鄭述), *Master Hangang's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Four Ceremonial Manners Grouped into similar Categories*(『寒岡先生四禮問答彙類』), inquiries about and answers to ceremonial manners(禮問答), theories of ceremonial manners(禮說), manners studies(禮學)

▪ 논문투고일 : 2016.1.10. 심사완료일 : 2016.1.31. 게재결정일 : 2016.2.12.